

“建築文化 一般論·序”

박 영 호

(건축환경동인·의전대표)

■ 東西文化의 만남

東西文化의 만남의 결과에 대한 의아스러움은 비단 歷史 研究家에 한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近代 西歐文明과의 접촉 이후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과 그것이 東洋 三國에 공통되게 나타났던 점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아심이 조금도 이상스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革命에 의한 無政府 상태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지배하에 들어간 支那나 大戰을 자초하여 敗戰國으로 전락한 日本의 경우나 日帝 침략과 民族分斷의 아픈 상처를 지닌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어찌된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西歐文物에 대한 일상적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불행한 일들의 아픈 기억은 더욱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西歐化 運動의 전진 속도에 있어서 일본은 우위에 있었던 모양이다. 그로 인해 인접국에 대한 軍事的 우위를 선뜻 확보할 수도 있었으며 文化的 영향력을 구사할 수도 있었던 모양이나 후일의 悲劇的 運命을 생각한다면 그 속도가 한두세기 빨랐다 해서 결코 신명나는 일이 아님을 느끼게 한다.

마찬가지로 漸進的인 경우라 하더라도 支那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똑같은 감상에 사로잡힐 것이다. 速度의 느리고 빠름에 관한 그와 같음에 구애받는 일이 얼마나 허망하며 속절없는가를 느끼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의 원인 규명이 歷史 研究家의 전문영역으로서 일반인으로서의 荒雜하여 도무지 알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불행한 일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것이 결코 歷史의 뒤안길을 걸어 感想에 젖으려는 안일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이미 우리가 운데, 生活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 아울러 文化의 저변을 생각한다면 建築文化의 향방은 물론 개개인의 西歐文物에 대한 접촉태도나 그文化에 대한 所見이 어떠한가에 따라 一國의 文化的 進運도 크게 달라지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建築文化가 西歐文化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 열림과 닫힘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외적 영향에 대해 닫혀져 있는 社會와 향시 열려져 있는 社會의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 아무리 두드러도 열려지지 않는 문을 가진 사회와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문이 개방되어 있는 사회다.

전자는 소위 鎖國主義라는 말로 대변되고 후자는 開放主義라는 말로 대변된다.

역사상 異質 文明과의 접촉에는 이 두가지 면이 先後 관계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開放된 채 選別되어 접촉된다는 다소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의 경우를 미루어 본다면 더욱 실감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支那나 日本의 경우도 공통되는 모양이다.

이러한 점을 주목한다면 西歐化 運動의 전진 속도와 마찬가지로 鎖國이나 開放이나 하는 단순한 일만으로는 그들의 장래에 대한 幸不幸을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들은 鎖國도 했었고 開放도 했었고 選別도 했었기 때문이다.

後日의 不幸이라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중간부분인지는 모

른다. 그러나 9회 말 逆轉되어 승리를 안겨주는 운동경기가 아닌 이상 더 세월이 지난 어느날 西歐文物에 대한 일반적 승리를 안겨 준다 하더라도 喪失된 自尊心과 피해의 아픔을 그 대가로 지불할 수는 없을 것이다.

現代에 있어서 완전 鎖國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완전 開放이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 개방은 되어 있으나 접촉된 것은 거의 개개인에 의하여 選別되어 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選別되어 文化交流가 이루어 지겠으나 문화 수용의 단위 하나 하나가 능수능란하게 좋고 나쁜 것을 가리어 낼 수 있는 것도 의문이다. 사실 썩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반대되는 이미지, 表象을 걸어내지 않는 한 전염될 수 있는 위험스러움은 항상 지니고 있는 셈이다. 좋은 商品이 들어오면 유사한 모조 不良品이 나오는 것이나 디스코 音樂만 들여와야지 하는데 춤은 물론 그것을 만들어낸 사회의 思想的背景마저 들여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좋은 것을 섭취하면서도 나쁜 것에 쉽게 感染되지 않는 個個人的 質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 過渡期

한 文明이 다른 形態로 모습을 바꿀 때는 未完成의 과도기를 지닌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듯이 숙달되어 도가 트이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鍛鍊되지 않은 상태, 터득되지 않은 상태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것은 技術의 숙련, 學問의 精進, 藝術的 創造, 人間性, 文明의 惠澤 등이 모든 것의 進展과 깊이를 생각한다면 별로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다면 轉換期에 뒤따르는 과도기의 必然性을 알게 된다. 그것이 없다면 歷史는 서로 다른 스토리를 모아놓은 短篇小說集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도기 없는 轉換을 바라는 것은 설익은 밥을 재촉하는 응석받이 어린아이나 다름 없다고 할까, 조바심을 누르고 느긋한 자세로 고쳐 앉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開化 이후 한 世紀가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西歐文明과의 접촉을 통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어 가는 未成熟의 혼란된 과도기를 거치므로서 現代文明과도 호흡을 같이 하는 오늘의 시점에 와 있는지 모른다. 비록 그 시기가 늦고 西洋文物에 대한 접근이 他人의 손에 의한 非自主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을 싹뚝 잘라내어 새로이 접목시킬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그나마 손상된 면을 찾아 보완하여 나아감이 더 소망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 기간이 어둡고 칙칙한 시절의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으나 후일의 成熟한 文化를 제공하기 위한 밑거름으로서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다. 不愉快하고 自尊心 상하는 추억을 감추어 없애려 한다면 다른 하나의 아픈 추억을 남기고 만다.

■ 文化의 傳授方向과 優越感

우리가 처해 있는 現代라는 狀況은 西洋文明이 주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現代文明이라는 주인공이 없는 시대문명인가. 現代文明은 곧바로 西洋文明이라는 생각은 아마도 오늘의 現代文明을 이끌어 온 주도세력이 西歐人이라는 데서 기인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내일의 世界文明을 주도하는 세력이 東洋이라면 그러한 생각도 자연 바뀌어지고 말 것이며 오늘의 우리가 염려하는 서구문물에 대한 挑戰의 어려움을 상대에 물려 줄 수도 있다는 暗示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文明을 主導하는 세력도 항상 바뀐다는 사항이다. 또한 우리가 現代文明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이상 어느 시점에서는 東西의 구분이 아닌 現代人에 의한 現代文明이라는 생각이 더욱 지배적일 것이다. 現代文明의 親和力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러한 점의 이해를 더욱 쉽게 한다. 오늘날의 衣食住를 비롯하여 TV, 자동차, 비행기 등등 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비록 西歐人의 노력에 의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들이며 결코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다. 洋服을 벗고 상투를 틀고 다시 가마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生活 가운데

들어와 있는 現代文明인 것이다. 우리의 傳統이나 이땅의 風俗, 信仰, 山川과 아무 관련이 없다하여 따돌려 내려는 생각은 실제로도 어렵지만 그렇게 대범한 인상을 주지도 않는다. 차라리 그들이 하는 것처럼 마주 거루어 이겨내므로서 現代文明을 주도하려는 浩然之氣가 아쉽다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항은 文化는 相互 交流되므로서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좋은 文化일수록 왕성한 創意力만이 있는 듯 싶지만 기실 外他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온 사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헬레니즘이나 로마문명, 이슬람文化, 近世 西歐文化, 美國의 文化는 사실 그 搖籃을 다른 지역이 대신해 주고 있었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발생한 지역과 후일의 번창지역, 또한 佛敎의 발생지와 그것이 成熟한 지역의 차이점을 생각한다면 한 文化의 영도자라 하여 또 傳授者라 하여 조금도 뽐낼 것이 없으며 영향을 입었다 하여 비굴해질 수도 없다는 점을 알게 한다.

우리의 先祖들이 日本에 文化를 傳授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뽐내려 한다면 돌아서서 감사해야 할 곳이 생긴다. 검은 피부색갈 만으로 상대를 열등한 것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자신보다 고운 피부색을 지닌 자에게 굽신 거려야 한다. 文化의 傳授 方向만을 가지고 優劣을 따지려 든다면 이와 같은 自己 논리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

■ 時代產物의 決定因子

時代의 產物을 自然的 環境과 人文的 環境의 函數關係로 해석하려는 文化的 觀點은 꽤 오래된 이 방면의 견해 가운데 하나다. 예를 들면 東洋文化 西洋文化 또는 地域文化나 政治, 經濟, 社會, 建築, 服飾 등 모든 분야에 걸쳐 時代產物의 특정현상(R)은 그 時代가 처해있는 環境(E)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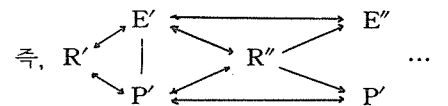
일견 단순한 公式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環境이라는 그냥 막연한 단어가 내포한 수많은 영향인자를 생각한다면 복잡한 내용을 실감하게 된다. 이를테면 人文的 環境으로서 政治, 經濟, 哲學, 風俗, 人心등을 들추어 낸다 하더라도 이 요소(E_i)들 마저도 다른 環

境 因子(E'_i)로 부터 영향 지워 지는 것이므로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되어질 것이다. $R_1 = f(E_1, E_2 \dots)$, $E_1 = (E'_1, E'_2, E'_3 \dots)$, $E_2 = f(E''_1, E''_2, E''_3 \dots)$ 와 같은 관계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은 몇몇 抽象된 요인만을 가지고 文化現象을 설명하려는 간결함을 택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영향인자의 變數的 역할과 누적된 힘의 효과를 간과하지나 않나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아울러 낱말의 특정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抽象된 環境의 특성만으로는 미흡함을 느끼게 된다. 이를테면 高麗瓷器라는 高麗時代의 產物은 韓半島라는 自然的 環境과 이자연적 環境을 배경으로 하여 자라온 사람들의 自然에 대한 견해, 心性, 풍속과 그 時代 특유의 民族感情, 契丹, 女眞과의 굴욕적 외교관계, 거둬진 蒙古兵亂, 宋으로 부터 유입된 도자기술과 좋은 재료 등은 高麗瓷器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지언정 개개의 瓷器에 대한 설명에는 합당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雲鶴文梅瓶의 특성이면서 蒲柳水禽文瓶의 특성이기도 한 때문이다. 같은 環境因子로 부터 태어난 瓷器나 형태가 그 맛이 경우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준다. 이것이 바로 時代 產物의 결정요인으로서 個人的 特質(Predisposition)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한층 구체화된 착상을 낳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같은 環境이라도 個人的 상이한 특질 때문에 그 行動결과가 다르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時代 環境은 個人과 영향을 주고받아 하나의 시대산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개인과 環境에 다시 영향을 미치어 간다는 것이다.



...과 같은 표현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앞절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個人的 역할은 文明의 접촉에서 幸不幸을 좌우했던 것처럼 時代 產物의 決定인자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樣式史로서의 美術史를 人名 없는

美術史로 批評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環境(Umgebung)와 環境(Umwelt)를 들어 個人的 文藝的 特性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은 결코 生소하게 들리지 않는다. 요컨대 質 좋은 文化란 個個人이 그 基本이 됨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 좋은 建築文化

文化는 그 時代 人間의 活動의 產物이라 한다. 人智가 깨고 세상이 더욱 밝았던 시기를 文化的 繁盛期라고 하듯이 이 活動의 優劣은 文化水準의 척도가 되고 있다. 文化란 서로 다른 文化要素의 단순한 集合體인듯 하면서도 分離되지 않은채 상호간에 서로를 내포시켜야 하는, 즉 涵容이라는 暗示를 만들어 준다.

政治나 經濟 등 특정분야의 성장만을 가지고 文化水準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분야의 均衡있는 발전과 아울러 이러한 文化的 惠澤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을 때에 文化的 先進國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母社會의 文化水準과 能力을 감안하지 않고 이야기되는 建築文化란 한갓 아이디어에 그치고 만다.

건축문화를 가지고 일반 文化의 척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음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

특정 분야의 質이 왜 이렇게 낮은가라는 질문은, 사실 전체 社會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建築의 質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일반 文化水準을 함께 끌어 올리는 작업의 일환인 동시에 건축을 생성시키는 그 社會의 文化水準을 어떻게 뛰어 넘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創作人이어야 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質 좋은 건축을 위한 요소로서 건축주, 시공자, 건축가 등을 손꼽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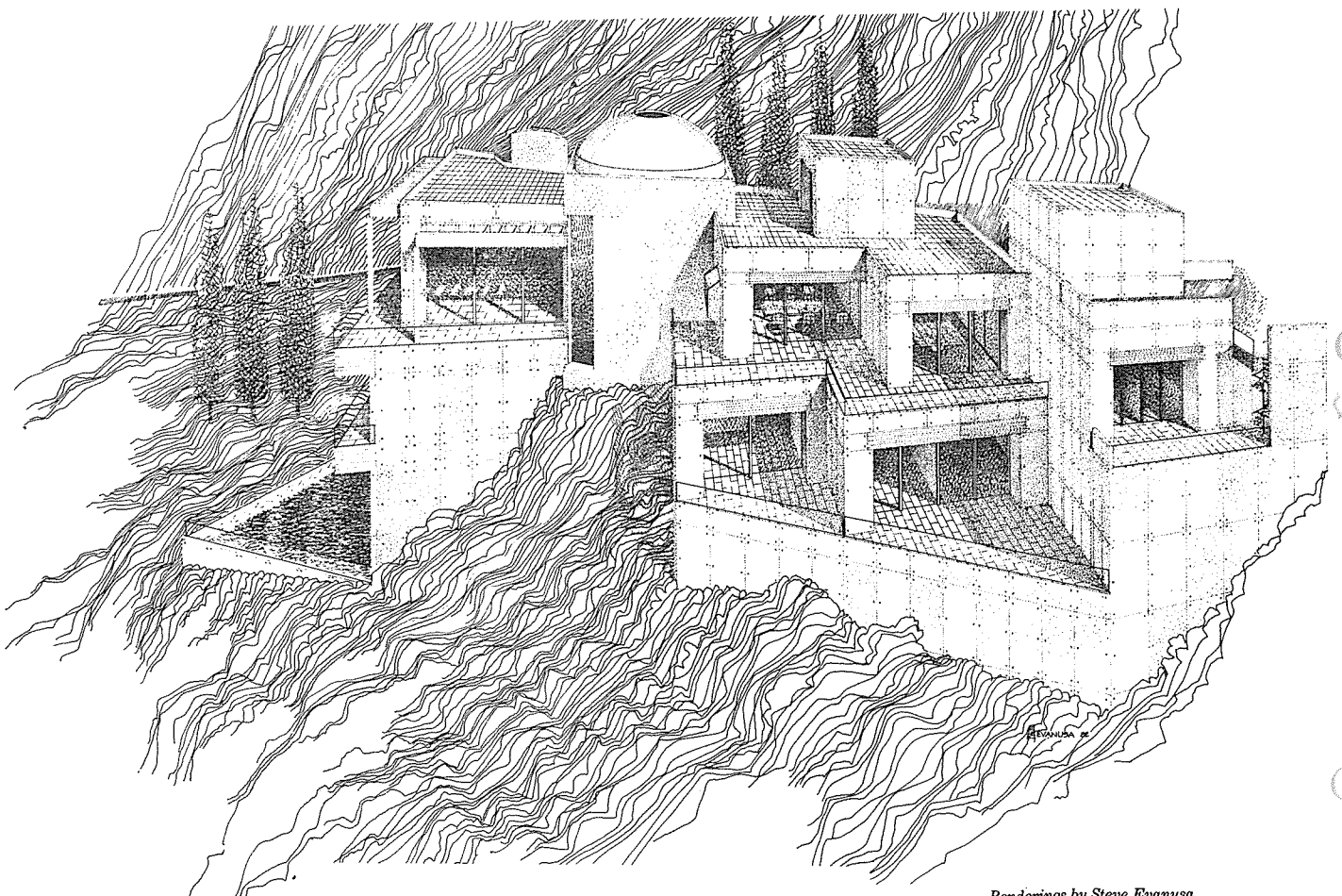
앞에서 文化는 交流되므로서 발전한다는 말을 했다. 이러한 말은 建築文化도 交流되므로서 발전한다는 뜻과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그 발전의 정도는 교류가 없는 停滯狀態에 비교

한 정도이지 어느 정도 우수한 것인지는 미지수일 것이다.

先進 外國文化에 심취하므로서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많을 것이다.

Christopher Alexander나 Charles Jencks의 建築理論도 Paul Rudolph의 건축 造形도 다 좋은 것이나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先進 建築文化人으로 착각하게 한다거나 이를 토대로 좋은 건축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꿈에 젖어 있다면, 스스로를 그 下部에 매어 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잘된다면 그런대로 낫설지 않을 것이나 잘못되면 서로 맞지 않는 묘한 것이 되어 버린다. 스스로가 앞서가는 줄알지만 실제로는 옆을 보고 옆사람 흉내를 내는 것 뿐이니까 잘 되어 봐야 卓越하다는 평가에는 아쉬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말 좋은 建築文化란 交流 가운데 있으면서도 탁월한 創意力의 발로로 새로운 世界를 창조해 냄으로써 새로운 傳統을 만들어 내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Renderings by Steve Evanusa